

■주간 증시 전망

북미 정상회담 리스크 해소 국면

심리적 지지선 2400선 근접

IT·증권·중소비주 관심 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미 회담 취소를 언급한 뒤 북한의 북미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주말 극적으로 성사된 4차 남북정상회담, 미국측의 북미회담 재추진 가능성 등이 보도되며 국내증시는 주 초반 북북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 출발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증시 뿐 아니라 국내증시에도 금융주를 중심으로 충격을 줬다.

이탈리아가 오성운동과 극우동맹 간 연정협상 초안에 유럽중앙은행(ECB) 매입국채 상각과 유로존 탈퇴절차를 담았던 것이 알려지면서 이탈리아 국채가 급락세를 보였고 이탈리아(이탈리아의 유로존탈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

이탈리아는 2조유로(약 2500조원) 정부 부채를 보유중이며 GDP 대비 정부부채는 132%수준으로 유로가 권장하는 6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탈리아 은행부채는 주로 프랑스 미국 독일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주의 하락을 이끌었다. 이탈리아 정부가 명시적으로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향후 긴축재정 완화를 요구하며 EU와의 갈등이 주기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로존내 위기를 경험했던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탈리아 정치적 불안의 영향이 컸던 것은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의 정치 불확실성이 동반되면서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국민당의 전·현직 당직자 20여명이 부패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지난 2011년부터 개혁을 이끌어온 친유로성향의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총리가 결국 지난 1일 의회 불신임 투표에서 물러나고 페드로 산체스 사회당대표가 총리직을 맡게 되었다. 다만 지난 2011~2012년 유럽재정위기 과정에서 유럽중앙은행은 다양한 대응책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주초 우려와 달리 새로운 총리 선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금요일 유럽과 미국증시가 동반상승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지난 1일~5일까지 미국인상중앙학회(ASCO)가 개최된다. 3월 미국암학회 기간 동안 국내 제약바이오주가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ASCO에서 국내 8개 기업은 10개 물질에 임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미 발표내용이 시장에 알려져 있고 대북관련주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등 테마주가 부각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주는 올 한해 지속적인 관심권에 돌 필요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활용해 비중을 줄여주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이번주 코스피지수는 기술적분석과 심리적지지선인 2400선에 근접해 있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증가가 예상되는 IT를 비롯한 증권, 기계, 중소소비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코스닥 및 개별테마주는 대북관련주와 ASCO가 진행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상호 대응하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 목표수익을 낮게 잡고 빠른 시장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생육부진에 값 폭락...전남 양파농가 '겉시름'

이상기후에 강우·일조시간 부족 노균병·잎마름병 확산

무안 5개 농협, 비계약 농가 생산 양파도 수매키로

전남지역 양파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생산량이 크게 늘어 양파값이 폭락한 것에 이어 이상기후로 품질마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품질이 떨어져 생산량이 줄어들면 조금이나마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생산량이 워낙 많은 탓에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역농협들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원)에 따르면 '2018년산 중만생종양파의 생육상황 조사' 결과 지난달에 대비해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비슷하다'는 47%였고 '나쁘다'는 36%로 나타나면서 생육이 전월보다 더 부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노균병, 잎마름병 등이 확산돼 생육부진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봄 갑작스러운 눈이 내리는 등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한데다, 지난달 잦은 강우와 일조시간 부족으로 병이 빠르게 확산했다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지난 5월 양파주산지인 무안·신안·함평·해남·고흥지역의 강수량은 90.4mm로, 평년 111.6mm에 비해 21mm가 적었다. 하지만, 강수량에 비해 흐린 날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조시간은 163.8시간으로 평년 229.0시간에

비해 무려 65시간이나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내 병 발생 등 영향으로 중만생종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전월 조사치(평년대비 -6%)보다 감소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만생종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평년보다 12% 감소한 5570kg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예견돼 있던 '양파값 폭락'도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양파 도매가격은 1kg당 78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68원에

비해 26.4% 하락했다. 또 지난달에는 659원으로 전월에 비해 하락,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975원보다 32.41%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지역 양파농가들은 '폭락'에 '생육부진'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시름을 앓고 있다. 전남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병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에 따라 지역 농가의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무안군 관내 5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3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농협 비계약 농가가 생산한 양파도 농협에서 수매 해주기로 했다.

이날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에 따르면 수매대상 양파규격은 7.5cm 이상으로 각 지역농협별 여건에 따라 상품 수매가격은 품위별 1kg당 350원~450원 선에서 차등 적용해 수매, 추후 판매에 따른 수익발생시 제비용을 차감한 일일액을 출하농가에게 추가 정산하게 된다.

산지 유통인들에 의해 거래되던 비계약물량을 농협에서 수매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양파의 산지가격은 농협 수매가격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양파재배 농가의 수취가격 제고와 농산물 제값받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농협은 기대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3일 무안의 한 농가가 수확철을 맞아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양파주산지인 무안을 비롯한 전남지역 농가들은 생산량 증가와 생육부진 등으로 양파 가격 폭락을 면치 못하면서 시름을 겪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농협 전남본부, 이상저온 피해 과수농가 대책 마련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이상저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남지역 과수 농가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우선 지난 1일 장성지역 사과 농가와 나주 배 농가를 찾아가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위로했다.

현재 전남지역은 4월 중 이례적인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 착과불량, 낙과, 병충해 발생, 작물 품위 저하 등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해 앞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농협은 이번 이상저온 피해와

관련해 ▲영양제 등 할인 공급 ▲금융자금 신규 지원 및 금리우대 ▲기존대출에 대한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조기 지원 ▲피해규모에 따른 재해예산과 무이자자금 지원 ▲피해농산물 판매 지원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박태선 본부장은 "이례적인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어렵게 키워낸 작물들의 심각한 피해 현실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농협은 농업인들의 아픔에 함께 하는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농가피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 지원

목포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최근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개최된 '2018년 상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여해 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월부터 광주·전남 KOTRA 지원단과 수출지원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등 10개 기관과 기업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상담회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수산물식품 수출

기업 맞춤형 원스톱(One-stop) 컨설팅을 실시한 첫 사례다.

이날 참여 기업에 대한 종합적·유기적 수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간 상담지원 분야를 상호 공유해 합동으로 기업을 찾아 농수산물식품의 해외시장 개척부터 수출입 통관까지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출상담의 효율성을 높였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지원사업에 대한 협업을 통해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